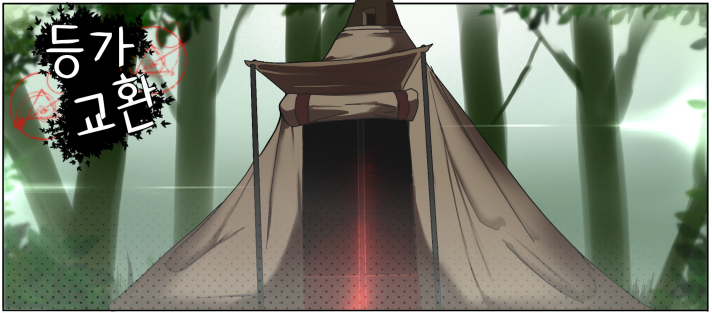


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.





날 부른건
그대들인가!

크르르르



용건이 뭐지
소환자여.



그 실이시여!
거희들의 부름에
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!

응 귀!



위대하신 화신이시여.....
저희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
숲의 재해를.....
복구하기 위해서입니다

진정해...

대답...



흠.....

그렇단...

20년만의
큰 산불에
목재와 사냥감들이
전부 불타버려 부족
의 모두가 대기근을
겪고
있습니다.

그래서 불과 생명의
화신인 플워튼님에게
도움을 요청하고자
불러낸 것입니다



뭐어. 자세한 방법은
진행하면서 하자꾸나.

아...그건 말이지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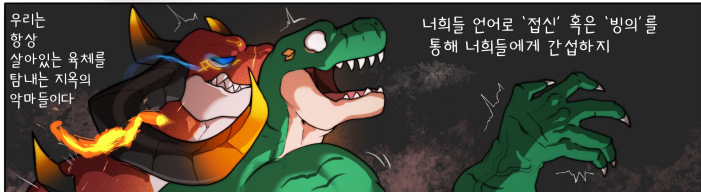
그럼 그 매개로 한다는건..?

바로
이렇게다



우리는
항상
살아있는 육체를
탐내는 지옥의
악마들이다

너희들 언어로 '접신' 혹은 '빙의'를
통해 너희들에게 간섭하지









하... 그레...
생생하게 살아있고
맥박이 있는
이 몸-

볼끈 ✓

'1000년간' 쌓인
뽕물이 터질거 같은
이 감각!

심지어 아주
잘 단련된 육체야.
이 나를 완전히
수용하다니...

영매사로서의
재능도 한몫했군.

으아아아!
아니 이게 무슨!
몸 돌려주세요!!!

너희가 바란
소망(?)을
이루기 위해
필요한거다 참아라



거참, 시끄러운 늑이군..

크윽



✓ 그전에 먼저..
선물을 받아들까? ✓

저기 고가
☆주 탐스라워 ✓

할꺼 ✓



무.....

무엇을

덤

석



왜 내몸이 찢어지지
아.. 않는... 크어억...!

크으!!
아 작은 구멍도
멍기로구나!

내가 가진
신통력으로
네놈의 내구력을
올려놨다!
거시기 정도로
죽지 않을거다

크와와



그 이후로 몇십번의 난교를
통해 만족한 화신은 불탄 숲을
원래대로 만들어 굶지 않게
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....



빙의된 부족원이 가끔
거대해져 부족원들을 따먹
는 현상이 생겼다고...

